

노형건

늘 힘을 주는 시

6년전 합창단을 지휘하던 중 휴식시간에 우연히 피아노 위에 놓여진 리차드 알레인의 헌신기도를 읽게되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과 방송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고는 한다.

헌신기도

리차드 알레인 (Richard Alleine)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라디오서울 Home Sweet Home 진행자. 사랑여성합창단 지휘자. 오페라 캘리포니아 선교 오페라단 단장.

주님 원하시는 자들에게 붙이소서
일하게 하시고
고난 받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쓰시고
주님을 위해 묵히소서

주님을 위해 높이시고
주님을 위해 낮추소서

충만케 하시고
빈곤케 하소서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아무 것도 없게 하소서

미셸 박 스틸

어머니, 그리고 호심경과 한국말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 인생에 꾸준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학이라면 역시 ‘어머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다정하고도 헌신적인 삶의 모습이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수필가이신 어머니는 수많은 글들로 나를 가르치셨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말씀과 글귀들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었지만 그 중의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다.

내 어머니 정옥희 수필가의 첫 번째 수필집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는 마을’ 145쪽에는 호심경(護心鏡) 20수가 들어 있다. 여고시절 배구선수로 활약했던 어머니에게 당시 배구코치로 계셨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편지글 속에 들어있던 것을 인용하신 것이다.

호심경을 받은 어머니는 가끔 이 글을 베껴 쓰곤 했는데 나도 들여다보며 “참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 몇 마디는 늘 가슴에 새기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

1. 옳은 일하되 자랑하지말자.
2. 겸손하되 간사하지 말자.
3. 친절하되 지어하지 말자.
4. 절제하되 인색하지 말자.
5. 위하되 바라지 말자.



한미 공화당협회 위원장. LA소방 및 공항 위원. LA Country 아동복지 위원. 가주 조세 형평국 위원.

그리고 조세 형평국 위원으로 당선된 후 한 가지를 더 보태었다.

6. 참되되 자만하지 말자.

이 글을 쓰며 생각나는 일이 있다. 얼마전 교회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감사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옆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하셨을 때 어머니는 금방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제 어머니께 감사한다”고 하셨다고 한다. 나 또한 금방 어머니가 외조모님을 떠올린 것처럼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에게 한국말을 잊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일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서 한인들의 큰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민 1세대 어른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말로 “도와주세요” 하니까 정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귀엽게 보며 “오냐, 오냐” 하신 것이다. 나는 이번에 한국말이 곧 한국이고 한국말이 곧 동족애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선거 후 나는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